

이사회-학교 양보 없는 충돌...대학 미래 먼저 생각해야

극한 치닫은 조선대 내홍...해법 없나

조선대학교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김이수 이사장이 24일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법인 이사회는 물론 민 총장도 퇴로가 없는 상태여서 최악의 경우 총장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대학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다음달부터는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중대한 시점이어서 후유증도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교원징계에 대한 이견차에서 촉발됐다. 징계 사안은 미래사회융합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보고서 누락과 공과대학 모 교수가 6학기 동안 수업을 강사에게 대신 맡기고 자신은 강의하지 않은 건이다. 조선대는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으로 매년 7억여원을 받았으나 이 문제가 불거져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교원 징계 놓고 이견차 커...이사회, 징계 거부한 총장 징계 의결 임계점에 다다른 학내 갈등...대학 혁신 둘러싼 힘겨루기 해석도 대학 이미지 실추 악영향 속 다음달 수시모집 앞두고 후유증 우려

애초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 당사자들을 징계했으나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단과대학장 2명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부총장,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사안이 중대한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총장직권으로 징계안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민 총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7월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2명을 징계요청하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민 총장은 '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을 넘기는 모양새

가 된다'며 역시 거부했다. 이번 사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주권을 지키려는 대학 구성원과 법적 기구로서 조선대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회의 해묵은 갈등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민 총장이 최근 담화문에서 "법적 심의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론과 상관없이 징계를 제정하라고 압박한 법인의 조치는 총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사개입"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수년 동안 학내 구성원들에게 배척당해온 이사회도 최근 교육부의 법인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예상하지 않게 보고 있다. 이례적으로 법인 이사회

의 월권행위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를 이사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학 구성원의 뿌리깊은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혁신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해석도 있다. 법인 이사는 물론 대학 구성원, 외부인사가 참여해 지난 2019년 마련한 혁신안에는 학사구조 개편, 총장 후보 선출권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 등 파격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 대규모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돼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사안이다. 법인의 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대학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학생, 교육 수요자 중심 개혁을 꾸준히 주문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퇴행적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며 "결국 이사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학교의 핵심보직자는 "혁신안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한 사안도 아니고, 총장이 임기 2년여 동안 코로나19사태에 맞서 학교를 이끌어오면서 겨

를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이사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낸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양측의 갈등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하지만, 조선대 안팎에서는 공멸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학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법인 이사회는 물론 총장도 대학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타협과 상생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대에서 명예퇴직한 한 교수는 "또다시 해묵은 갈등이 되풀이 돼 안타깝다. 양측이 진정으로 대학발전을 위한다면 서로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여론수렴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 공판 10월 재개

장외주식 사기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일석(53) 전 필립에셋 회장에 대한 공판이 오는 10월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엄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공판 기일을 연지 9개월 만에 공판이 속행되는 것이다. 엄씨는 지난 2018년 12월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지 임박했다는 등 허위정보를 퍼뜨려 2~2.5배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되팔았으며, 차액

2180억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2000원에 되팔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엄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년 5월 법원으로 부터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이 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올해 들어서도 수개월째 공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은 최근 잇따라 광주지법을 찾아 1인 시위를 열고 있다.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잇따라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풀려난 엄일석씨가 유사 사업을 이어가면서 또다시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구속 재판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엄씨는 법인세 등 12건에 걸쳐 92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21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가족이 25일 광주시 효령동 영락공원에서 회장이 진행되는 동안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이병노 담양군수 사전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이병노(62) 담양군수에게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혜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관련자 압수수색으로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보면(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관련자 2명

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형호 기자 khh@

“안타까운 죽음 더 이상 없었으면”

보육원 출신 10대 여성 화장장...아버지·남동생 마지막 길 배웅

'세상이 가혹하다'는 유언을 남기고 자신이 살던 광주시 광산구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원 출신 10대 여성이 25일 한 줌의 재로 돌아갔다. 빈소도 없이 사망 하루 만에 장례 절차가 끝난 것이다. 정신장애(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친과 보육원에 지내다 누나의 부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동생이 배웅했다.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서 A(여·19)씨의 화장이 진행됐다. A씨의 주검은 장례식장에 보관되다 이날 낮 12

시 30분께 영락공원으로 향했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오후 2시 화장됐다. 이후 한 시간여 만에 유골함에 담겨 안치됐다. A씨의 마지막 가는 길은 아버지와 남동생, 보육원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A씨 남동생은 생전에 누나가 머물렀던 보육원에 맡겨져 있다. 부친마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4일 오전 7시께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살

이 너무 가혹하다. 최근 남자친구가 먼저 떠나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사정에서 수년 전 A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A씨 부녀가 이달 들어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지기 맞서 전일 19일까지 임대아파트에서 격리된 사실이 이날 새롭게 확인되면서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심적 고통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산구에 따르면 A씨 가족은 모두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집중 관리하는 가정으로 분류됐다. 공무원들이 매주 찾아가 안부를 묻고 반찬 등을 지원했으며,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합쳐 매달 110만원으로 부녀가 생활했다고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